

## 〈백년전〉의 인물 형상화와 시대적 의미\*

서경희\*\*

— <차 례> —

1. 서론
2. 주변 인물의 역할과 가치 구현
3. 주동 인물의 형상과 가치 지향
  - 1) 박일용의 콤플렉스와 자기 의지의 확인
  - 2) 백년의 소망과 성공의 이미지
4. 〈백년전〉이 반영한 시대 변화와 소설의 대응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백년전〉의 단조로운 서사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20세기 초 소설 독자들의 기대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부터 야담으로 향유되던 이야기가 소설화된 것으로 20세기 초 활발하게 유통되고 많이 읽혔다. 〈백년전〉은 소설화 과정에서 주변인물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동 인물에 대한 가치를 보증하고 도덕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그들의 행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주변인물의 후광을 입은 주동인물 박일용은 몰락한 집안의 후예로 불우한 형편이지만 백년에 의해 부여된 성공의 동기를 내면화하여 전통적인 남성의 성공 의지를 다졌다. 백년은 혼인을 통해 제대로 된 양반의 신분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관철시키며 본인 역시 재물의 경영에 나서서 향촌의 지주가 되고 서울 재상가의 집치레를 갖추었다. 애초 백년에 의해 소망된 이들 부부의 성공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몰락한 향촌의 사족 후예가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선택했던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당시 세태와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음에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을 갖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백년전>은 일용과 백년의 소망을 실현하면서 돌파구가 없는 현실에 막다른 출구를 열어두는 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백년전, 주동인물, 주변인물, 성공, 소설화

## 1. 서론

<백년전>은 인물들 사이에 큰 갈등없이 전개되는 짧은 분량의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국가적 위기도 가문의 해체나 몰락도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이의 것을 탐하는 자나 시기하는 이도 등장하지 않는다. 주변인물들조차 모두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오로지 뉴백년과 박일용, 두 인물 간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서사를 추동하게 된다. <백년전>에서 뉴백년과 박일용이 신혼 첫날밤 맺은 약조는 10년 동안 헤어져 노력하여 각자 성공을 이루자는 것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박일용의 경우와 뉴백년의 사정이 서술되고 이들의 만남으로 사건을 종결 짓는다.

이 작품은 야담집에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있고, 동일한 구조의 다른 제명을 가진 소설도 존재하며, 여러 이본도 남아있다. 특정 시기 <백년전>의 이야기는 여러 독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부로 연을 맺은 두 인물이 성공을 이루어가는 단순한 서사가 소설화되고 전사되어 읽힐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백년전>에 대한 기존 논의의 이해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작품에 대한 해제와 진동혁 소장본의 원문이 소개<sup>1)</sup>된 이후, 전택부 소장본을 진동혁 소장본과 비교 대조하면서 이본의 특성이 검

토되었다. 해당 논의에서 <백년전>을 여성지인담 소설로 분류하고 전택 부분에 대해 비교적 백년의 인간상과 의지가 두드러지고 구어체에 가깝다고 보았다.<sup>2)</sup>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여자에 의한 남성 인물의 출세라는 점에서 <온달전>과의 유사성에 주목하였고, 남녀의 지위가 바뀌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면서 전반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소박하는 장면을 통해 여성들의 한을 승화한다면 후반부에서는 박일용의 활약을 통해 가능성을 보이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또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sup>3)</sup> 여성인물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백년이 현실적 여장부로서 유교적 여성관 아래 제약받는 여성적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소설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성공적 삶을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개인의 능력과 실제적 현실 차원에서 영웅을 형상화하고 여성의 한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sup>4)</sup>

<백년전>과 <민시영전>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에서는 두 작품이 거의 동일하게 서사가 진행되는데 단 후반부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시영전>의 여주인공 윤부인은 학업에 실패한 모양새로 돌아온 민시영에게 다시 학업을 성취하고 올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백년전>의 유씨가 남편 박일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작품에서 오랜 기간 남편과 헤어져 홀로 지낸 여성이 인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해석했다. 또 두 작품의 여주인공이 혼인을 통해 완전한 가정을 꾸리고 잠재된 능력을 남편에게 쏟아 미완의 삶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작품의 의미를 읽어냈다.<sup>5)</sup>

1) 진동혁, 「미발표 고대소설 <백년전> 해제」, 『도솔어문』 5,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61~179쪽.

2) 강영순, 「<백년전> 원전 연구」, 『열상고전연구』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295~358쪽.

3) 조상우, 「<백년전> 연구」, 『東洋古典研究』 8, 東洋古典學會, 1997, 63~88쪽.

4) 김귀석, 「<백년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42, 한국언어문학회, 1999, 169~184쪽.

5) 김귀석, 「<민시영전>과 <백년전>의 비교연구」, 『論文集』 10, 東新大學校, 1998, 15

<백년전>이 야담을 토대로 형성되었음을 밝힌 연구에서는 1873년에 찬집된 『금계필담』의 <고유이야기>가 1912년 출간된 『도선나설 청구괴담』의 <강서고어사전>과 1921년에 나온 『박안경기』의 <고어사>로 변이되었고, 이 두 이야기가 <백년전>으로 소설화된 과정을 추적했다. <백년전>은 소설화 과정에서 주변인물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삽화를 한 장면에 조합하여 확장한 결과, 야담이 지닌 전일한 주제의 초점이 흐려지고 오락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았다.<sup>6)</sup>

이처럼 기존 논의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백년전>의 여성인물, 혹은 인물 관계에 주목하여 여성영웅소설의 하나로 파악하고 여성인물이 결국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는 한계라기보다 당대 여성 삶의 현실적인 대안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한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19세기 후반부터 <백년전>의 토대가 된 이야기가 형성되고 기록, 변이를 거쳐서 <백년전> 혹은 <민시영전>으로 소설화 되어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백년전>의 발생 및 변이 과정을 밝히고, 여성지인담이자 여성영웅소설의 맥락 속에서 여성 인물 형상화의 의미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처럼 이야기가 다시 채택되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변이하는 것, 그리고 인물들의 처지가 역전되고 여성의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 작품이 두루 읽힐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특정 이야기 구조가 반복해서 기록되고 소설화되어 될 수 있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시기 <백년전>이 성립되어 독자의 공감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과

~30쪽.

6) 김준형, 『19세기말~20세기 초 야담의 소설화 과정과 <백년전>』,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 201~238쪽.

연 서사 구조나 장면 서술 때문만일까? 이 이야기는 야담집에 수록되어 남성독자를 위한 한문 기록으로도 읽혔고 다른 제명의 소설 <민시영전>의 경우는 일부 한자어에 한문 병기를 하는 방식으로 남성 필사자에 의해 전사되었던 것<sup>7)</sup>을 미루어 본다면, 여성의 한을 반영한 서사로만 볼 수 있을까?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성과에 힘입어 <백년전>의 단조로운 서사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20세기 초 소설 독자들의 기대와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sup>8)</sup>

## 2. 주변 인물의 역할과 가치 구현

기존 논의에서 검토했듯이, 유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소설 <백년전>에는 주변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sup>9)</sup> 부부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이야기가 주변인물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연되었다. 박일용이 머슴 사는 집 주인 김좌수가 등장하고 백년이 의탁해서 지내는 이진사와 뉴씨 부부의 역할이 커졌다. 이들은 <백년전>의 두 주인공이 혼인 전까지 의탁하던 인물들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읜 박일용과 백년에게 김좌수와 이진사 내외는 주변 인물로서 이들

7) 김귀석(1998), 앞의 논문, 15쪽 각주1 참조.

8) <백년전>은 지금까지 4종의 이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희용,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78~179쪽 참조) 모두 개인 소장본으로 그 가운데 전택부 소장본과 진동혁 소장본은 강영순(1995)의 앞의 논문에서 전체 원문이 소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구성상 큰 차이가 없고 서술 차원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검토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동혁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전택부본을 함께 검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9) 김준형(2007), 앞의 논문, 224~227쪽.

의 신원을 보증한다.

먼저 김좌수는 박일용이 여러 해 멈 서는 집의 주인으로 일용이 원근친척이 없어서 혼인을 주장할 사람이 없음을 걱정할 때, 혼쾌히 나서서 혼구법절을 차려 착실하게 혼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다.<sup>10)</sup> 김좌수는 주혼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고아인 박일용의 지난 삶과 주거의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고용인을 위해 선뜻 나서서 혼사를 돕는 태도에서 박일용의 됴됨이가 그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김좌수의 존재는 작품의 말미에서 환기된다.

할님이 도 문왈, “…김좌슈라 하난 집이 형세가 요부호고 인심이 그록호여 이런 사람 티각도 잘 하시기로 유명호시더니하고 지금도 그져 계신지 모르옵 거니와 그딕 성흔이시니잇가? 일가딕이 아니시닛가?” 그 소년이 듯고 쥬연탄왈, “김좌슈가 닉 부친이라. 늑칠년 사이의 부모 구물호시고 가사니 탕퓌호여 싱도 어렵기 이딕의 와 스랑도 직히고 아히도 글 가리치고 잇나이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좌수는 부유하고 인심도 후하여 빌어먹는 사람들도 잘 대접해주었다고 했다. 인품이 넉넉하고 덕을 베풀 김좌수 내외가 죽고 가산이 없어진 뒤에 그의 아들이 백년의 집에 의탁해서 지냈으며, 박일용이 대과에 급제하여 백년과 해후한 뒤 고을에 부임할 때 “김좌슈의 아들은 조흔 말게 안중을 지여 티와 칙방으로 다려”갔다. 김좌수는 단지 혼인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주변인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

10) 박도령이 닉심의 깃부고 즐겅기 총냥업셔 다시 엿자오디, “진스님이 날을 동셔 삼고 쥬 호시니 극히 외람호오니 실상호신 말씀이면 더욱 감스호은 마음 총냥치 못호리소이다. 그러나 닉 원근친척이 업스온즉 닉 쥬장호여 하리잇가.” 진사 더욱 불상 괴특이 여겨 김좌슈을 보고 왈, “그디는 히포 쥬기지의 잇고 동경식호은 정여 브별호 거시니 이 아히을 위호여 쥬혼호고 범스를 보살피 쥬미 엿더호뇨?” 좌슈 답왈, “진사 그말 아니호셔도 닉 엿지 범년호리잇가. 혼구법절은 착실이 호올거시니 염녀마압쇼셔.”

라, 사후에 일용으로부터 보답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일용을 고용하여 생계를 돕고 또 그의 혼인을 주장했던 일에 대한 보답으로, 백련은 오갈 데 없는 처지인 김좌수의 아들을 거두었으며 일용은 책방으로 삼아 임지로 데려간 것이다. 김좌수는 주인공의 행적에 조력자로 기여하여 소설의 말미에서 보응의 대상이 되고, 백련과 일용은 은혜를 갚는 과정을 통해 조력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 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보응의 책임은 이진사 부부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강서고어사전>에서 여주인공은 형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물 길고 방아질을 하는 고된 생활을 하지만, <백년전>에서는 형부 이진사가 “각별 처제를 인홀흐를 친남미갓치 사랑호여 어디가 조흔 음식을 먹어도 바다” 쥬고 괴로흔 난을 크로 무르니 어디가 성치 못호면 의약을 극진니 호여 친스직 갓치 간절이 불상이 여”겼다. 또 이진사는 박도령을 배우자로 추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에 박일용이 성공하여 돌아온 뒤, 일찍 세상을 떠난 이진사를 위해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양자를 두어 후사를 잇도록 한다. 이진사와 뉴씨는 백년 부부의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 공로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인공이 보응을 하는 과정은 인물의 품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소설의 세계에서 인물의 행위에 대한 포폄이 미진함 없이 진행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백년전>에서 이진사와 뉴씨의 역할을 확대한 부분은 백년의 결심과 이들 부부의 행보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년의 형부인 이진사는 지인지감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된다.

진스 답왈, “그디 말 아니하여도 닉 근심이로소이다. 년이나 한 곳지 잇시되 건너말의 사는 김좌수라 호는 집 면 사난 박도령 잇시되 고가후네요 박승지의 현손이라. 나흔 이십이요 그 아히 팔즈 귀박 고단호여 조실부모호고

일가친척도 읍서 김좌슈집 멈 사나 소견범절이 비범하고 얼굴이 괴이하고  
 형사가 단정하니 만다시 후일의 귀히 될 아히니 너 뜻세난 그 혼쳐가 맛당하  
 니 부인의 뜻전 엇싸타하냐요?” … 진스 소왈, “부인은 엇지 덕체를 알니요  
 넷날 덕순은 역산의셔 밧갈고 공구이 지너시다가 후일의 만승천즈가 되시고  
 강티공이 위슈의 고기낙기로 일삼다가 팔십의 봉후하고 부열은 성싸키로 전  
 호로 다니다가 은 동이 그 상을 그려가지고 단니며 차차 승상을 삼고 니운은  
 신앙의셔 농부노릇 하다가 성탕을 만나 공후되고 선빈천 후부귀난 하나리  
 정하시미라. 낙시덕메고 성호의 쥬려 누언 한시니 장단의 오를줄 그 뉘 알아  
 시리요? 그딴 소견이 엇지 그리 너르지 못하뇨?”

<강서고어사전>에서 여주인공이 스스로 고수재를 배우자로 지목하는  
 것과 달리, <백년전>에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지닌 이진사의 추천으  
 로 박일용은 백년과 혼인할 수 있었다. 이진사가 박일용의 재목을 인정한  
 이유는 행동거지가 비범하고 단정하다는 것, 그리고 얼굴이 기이하게 생  
 겼다는 점 때문이었다. <백년전>에는 이진사가 언급한 박일용의 자질 외  
 에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있는 행적이나 서술이 따로 나타나지 않  
 는다. 소설에서 초야에 묻혀 지내던 뛰어난 인물이 누군가의 눈에 띄어  
 인정받게 되는 과정은 보다 섬세하게 진행된다. <소대성전>에서 소대성  
 은 본인이 어려운 처지임에도 노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노인을 돕는  
 에피소드를 통해 넓은 도량을 드러낸다. 또 이승상이 상서로운 꿈을 꾸  
 뒤에 곧 소대성을 만나게 되는데, 남루한 외모에도 남다른 골격과 탈속한  
 기운이 드러나자 그가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본다.<sup>11)</sup> 그러나 <백년전>에

11) 일〓은 승상이 술을 취하시고 셔안의 〓지하야 잠간 조오더이 분득 춘풍이 스람을  
 인도하야 혼 고되 다〓르이 〓곳슨 승상이 평일의 유흥을 타 고기도 낙그며 풍경을  
 귀경하는 월영산 도되라. 그 우회 상서 기운이 열여겨늘 나아가보이 청용이 도되에  
 누엇다가 승상을 보고 〓기를 들어 소리를 질르고 반공의 소유겨날 씨다르이 일장춘  
 몽이라 심신이 황홀하야 죽장을 집고 월영산 도되로 나아가이 나무비난 아히 나무

서는 박일용이 큰 인물임을 암시하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의 뛰어난 외모나 비범한 기질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이진사의 판단을 통해 박일용이라는 인물의 가치가 정해진다. 이진사의 인정은 해당 인물의 행위나 서술자의 언급이 없이도 <백년전> 내에서 권위를 갖는 것이다.<sup>12)</sup>

백련이 혼인을 결정하고 신혼 첫날밤 새신랑과 10년간 헤어져서 학업과 치산을 하기로 약속하는 일련의 행동 역시 그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된다.

잇튼날 진스계 빅년 흥던 말을 낫낫치 흥니 진스 듯고 흥경흥희 왈, “딤테 게너로다. 귀히 될 소견니로다. 그딤 소견보다 너르도다.” 무슈히 칭찬흥고 “비록 미겨흥나 그딤는 당치 못흥리라.” 흥더라.

진스계 그 말을 의논흥니 진스 듯고 크게 기특이 역여 왈, “장너 크게 딘 슴이라 다르도다. 우리난 감히 쓰르지 못흥리니 부인은 말이지 말고 체계 흥난 디로 두시옵소서.” 흥고 못너 칭찬흥더라.

---

비여 세너가의 노코 버들그늘을 의지흥야 잠을 집피 들어거늘 보이 의상이 남누흥고 머리털이 훑터져 귀밧을 덤퍼시며 거문 썩 줄 〃 리 흥너 양협의 가득흥이 그 취비흥 물 칙양치 못흥나 그중의 은 〃 흥 골격이 썩 속의 비뢰여거늘 헤지 안이흥시고 무슈 흥 이을 자바 죽니며 잠 썩기를 지다리던이 그 아희 몸을 돌너 누의며 탄식 왈 흥산 빅옥이 돌속의셔 겨신이 뉘 보빈줄 알아보며 여상의 즈최은 교딤의 잇건마은 문왕의 그림즈 업고 와룡은 남양의 누어시되 유흥숙의 즈최 업시이 어너 놀의 갑즈일을 만 나리요 흥며 도라 누으니 그 소리 웅장흥야 산천이 울이난재 탈속흥 기운이 성음의 낫타나이 흥상 마음의 헤오딤 너 영웅을 구흥더이 오늘날 만나소다 <소대성전> 완 판 43장본 5a-5b.

- 12) 혼인 대상의 자질을 높게 사는,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인지감은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특히 혼인으로 삶의 터전과 모든 조건이 달라지는 여성에게 배우자의 감춰진 능력이나 자질은 더욱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신분과 처지의 배우자를 주선 받아 맺어지지만, 상대가 현실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혼인은 희망적이다. 지인지감으로 혼처를 선택하는 화소는 일정 정도 이러한 심리에 기대어 재생산된다.

백년이 뉴씨의 만류에도 박일용과의 혼인을 선택한 일이나, 혼인 후 10년을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일 모두에 대해 이진사는 그 소견을 기특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한다. 이진사의 지감은 백년의 행동을 신뢰 하도록 하고 그 행위의 귀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한다.

혜안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는 이진사에 비하면, 부인 뉴씨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남편인 이진사가 박도령의 사람 됨됨이로 보았을 때 훗날 귀하게 될 것이므로 그가 백년의 혼처로 어떠한지 묻자, 뉴씨는 놀라며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다.

“군즈 말씀이 놀납스이다 무부모혼 동심을 간고이 길너시니 부모나 있고 형세 요부한 덕를 구하여 경하면 훗근심이나 업기를 바라삼더니 니제 부모 읍고 남의 집 머사난 아히을 구하시니 엇진 일인잇가 닉 심의난 맛당치 아니 하오이다.”

뉴씨는 혼인을 앞둔 동생을 부모가 있고 살림이 넉넉한 배우자와 짝지어주고자 한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언니의 집에서 자란 백년의 처지를 생각하면, 혼인 후 삶이 평탄할 수 있는 조건의 배우자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부모도 없이 어렵게 키운 동생을 부모가 없는 데다 남의집살이를 하는 자와 혼인시키고자 하는 이진사의 제안은 뉴씨의 입장에서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다.

뉴씨는 백년이 박도령과 혼인 첫날밤 언약한 일, 즉 서로 헤어져서 10년간 글공부와 치산 방적을 하여 내외가 성공한 뒤에 만나기로 한 일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제 흥네 삼일의 부〓니별이란 말이 엇진 말이고. 아모리 글도 중히거

니와 네 망녕된 말을 어이하냐. 박냥이 써나 공부할 곳이 업고 피척 고단  
흔 터회 너의 의지하여 중요롭게 사난 거시 올커날 네 망녕되고 놀나온 말  
"나." 백년이 쏘 같오디, "형님은 말니지 마음소셔. 너 마음을 한번 정하여  
사오니 다시 곤치 못하여소이다. 어지 신정의 침님하여 디체를 손상하며 언  
약을 저바리잇가. 결단코 곤치지 못홀거시니 말니지 마음소셔." 하니 부인니  
할일업서 탄식분이러라.

뉴씨에게 백년의 계획은 허황되다. 박도령이 집을 떠나 글을 배울 곳도  
없는데, 10년을 떨어져 공부하고 성공한 뒤 만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다. 실현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혼례를 올린 지 3일만에 부부가 떨어  
져 지내는 것은 망령된 계획이므로 뉴씨는 동생을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뉴씨는 백년 부부가 고단한 처지이지만 서로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백년은 신혼의 정에 빠져서 대체, 즉 양반의 행  
세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일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씨는 혼인한 부부가 성공을 위해 함께 하는 삶을 희생하는 것에 동의하  
지 못한다. <복선화음가>와 같은 규방가사에서 여성 화자가 남편과의 관  
계에서 애정을 유지하며 사는 처세를 주요한 실천 덕목으로 언급한 것은  
부부생활에 대한 조선 후기 부녀자들의 현실적 선택을 반영한 것이다.<sup>13)</sup>  
뉴씨가 백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부가 함께 살며 정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처세의 덕목이 반영된 것이  
며 그런 까닭에 비교 우위의 '낫다'가 아니라 '옳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이다.

이처럼 뉴씨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 판단을 하는 인물이다.  
<백년전>에서 이진사와 백년이 지인지감으로 박도령의 장래를 알아보는

13) 서경희, 『탈권위적 여훈서의 성립과 이념성의 문제: <여자행실록>을 중심으로』, 『東  
方學』 32,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5, 59~93쪽.

것에 비해, 뉴씨는 눈앞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황만을 중시하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실상 뉴씨는 현실 맥락에서 의지할 곳 없는 여성이 장래를 보장받고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선택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뉴씨는 이 작품에서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존재로 후경화(back-grounding)된다. 이진사는 혼사에 나서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신혼 첫날밤 신랑과 잠자리를 매개로 거래를 하는 백년과 당시 부녀자들의 삶에 대한 걱정이나 바람을 드러내는 뉴씨를 분명하게 변별한다. 즉 백년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데 비해 뉴씨의 조언에 대해 폄하하는 것이다. 이러한 뉴씨의 후경화는 여성의 일상적 판단과 경험적 사고에 대한 <백년전>의 가치평가, 혹은 당대의 보편적 인식을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소대성전>에서 소대성을 박대하는 장모를 무지하고 몰인정하기까지 한 존재로 이미지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14)</sup>

결국 이진사의 권위와 뉴씨의 후경화는 <백년전>의 작품 세계에서 지향하는 것과 평범한 것의 경계를 보여준다. 일상의 안전한 삶보다는 선망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인물들이 <백년전>의 세계에서 긍정적인 후광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주변 인물의 설정은 백년과 박일용의 행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14) <소대성전>에서 왕부인은 이승상이 소대성을 데려왔을 때 조실부모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온 그를 사위 삼는 데 반대했고, 이승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집안 자체들과 상의하여 소대성을 집에서 내쫓으려 했으며 이승상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집에서 머무는 소대성을 해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 3. 주동 인물의 형상과 가치 지향

#### 1) 박일용의 콤플렉스와 자기 의지의 확인

박도령은 <백년전>에서 내면이 있는 인물로 입체화된다. <강서고어사전>에서 고어사가 여주인공의 호명으로 혼인의 상대가 되고 신혼 첫날밤 신부의 말 한마디에 10년 학업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백년전>에서 박도령은 의심하고 회의하며 개인의 경험 속에서 성장한다.

박도령은 조실부모하고 맘을 사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니진스 ... 박도령을 불너 곁오디. “네 장가을 들 쫓지 잇나냐?” 박도령이 디왈, “날갓튼 무부모하고 의지업산 아히가 웃지 장가들기가 쉽소릿가?” 진스왈, “네 비록 시방은 곤궁흐나 얼굴모양이 장너 잘 살거시오, 네 심지가 착흔 고로 너 동서를 삼고져 하니 네 쫓지 엇더흐녀?” 박소제<sup>15)</sup> 하난 말이, “옛말의 취쳐난 직천니라 흐거니와 진스님 갓타신 체제의 날갓탄 니을 동서 삼으실 이 업사오니 경 말씀이 아닌가 흐오되 거긋 말씀이라도 외람흐여 이다.”

박도령은 혼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진사의 청혼을 믿지 않는다. 이진사가 관상과 심성을 근거로 동서를 삼고자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도 박도령은 그러한 이유로 청혼을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거짓으로 한 말일지라도 자신의 처지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박도령은 백년과 혼인한 뒤에도 혼인이 성사된 이유를 잠시 오해한다.

신부 중시 못 듯는 듯 만퓌불청이여날 박심이 혀오디, “당초의 이진스가

---

15) ‘소제’는 도령의 오기인 듯.

날갯튼 의지업슨 사름을 동셔를 삼게노라 홀 적부터 너 의심혀더니 오날 보견디 과연 귀먹고 병어리로다. 저런 병신이기 너게 청혼호는 거살 너 철 물나 의심혀면셔도 속고 이런 낭편을 하니 누을 원호리요? 너팔즈 고향한줄 원호노라 이 정녕이 귀먹고 말못호는 병신니로다. 인비목석이로다! 엇지 이 얼줄 아라시리요? 너 전성의 무산 죄로 천봉지통을 어려셔 당호고 혈 // 단신 고단니 다니다가 남의 집 썩품과라 약간 전냥이 모여다가 아모조록 취쳐혀 여 조상계스나 숫차지 아니호고 살즈호고 하여더니 남의계 속은 비 되어서 니 병신안히 어들줄 엇지 아라시리요? 고향하다 너 팔즈야! 가련하다 너일이야! 썩이야? 싱시냐? 익달기도 그지업다!” 엇지 다 기록호리! 무슈이 생각다가, “예셔 사다가는 다란 디 취쳐도 못호고 전싱 두통일 거시니 진작 고향업시 도망호리라.” 호고 사미를 덜치고 일어나 문을 열냐하니

백년이 혼인 첫날 밤 박도령에게 10년 학업을 다짐받기 위해서 박도령이 건네는 말을 못들은 채 하는데, 백년의 속내를 알길 없는 박도령은 백년의 태도를 보고 금세 귀 먹고 말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여긴다. 백년에게 장애, 즉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짐작하는 것은 자신과 이진사택의 격차 때문이다. 애초 이진사가 청혼할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혼인이라 생각하고 재차 이진사의 진의를 의심하였는데, 첫날 밤 예상치 못한 백년의 반응은 그의 의심을 한층 더 깊게 했다. 부모도 재산도 없고 지체도 낮은 자신을 섣뜻 동셔로 삼은 것은 백년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도령은 뜻밖에 자신에게 찾아온 혼인의 기회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진사의 의도를 거듭 의심할 만큼 본인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변 인물들이 그의 됃됨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장래를 기대하는 것과 달리, 박도령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혼인 첫날밤 백년과 박일용이 옥신각신하는 장면, 특히 이러한 박일용의 속내와 갈등은 <강

서고어사전>에서 자세히 형상화되지 않는다. <백년전>에서 인물의 처지를 고려한 심리 상태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박도령은 20세가 되기까지 부모도 없이 몹을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했다. 근근이 자기 한 몸의 생계를 이어나갔으며 약간 모은 전향으로 아내를 얻어 제사를 잇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박도령은 신부가 장애가 있다고 오해했을 때, 백년이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한다면 평생 걱정거리를 안고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도망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속히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백년이 글을 배울 것을 요구하자, 장애가 없다는 것을 다행히 여기면서도 글을 배우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차라리 인연을 맺지 않는 쪽을 택한다. 20살이 되도록 배우지 않은 글을 뒤늦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지 않은 일로 여길 만큼, 주변 인물들의 기대에 비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다. 이진사는 박도령의 인품을 높게 평가하지만, 실상 그는 혼인한 관계에 대한 의리나 책임감을 가지기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꾀하고 있다.

박일용은 결국 백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이 아니다. 그는 백년의 말이 옳기도 하고 10년 동안 학업에 매진하겠다는 약조를 하지 않으면 백년이 무슨 일든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늘밤만 넘기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혼인 당시부터 상대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백년과 달리, 박일용은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심리만을 드러낸다.

이석 박싱이 신부와 언약 후 엇지홀 줄 몰나 난처허더니 이러구러 삼일

이 당혹여난지라. 신부 손쥬 횡장제구를 차려 써나기를 지촉호는지라. 흙금이 갑갑호여 아모리 홀 줄 모로난 중 글 홀 일을 심각호니 금광이 타난 듯호고 쏘 신부의 아리싸은 고향 모양 덧읍시 이별 할 일 천지가 아득호여 하늘을 우러 〃 탄식만 하더라. … 박싱이 괴나리 보점지고 길을 써나니 이썩난 계축 땅간이라, 어더로 갈 줄을 몰나 탄식분이요, 동방의 양유난 의 〃 호고 원의 도리은 작 〃 한디, 부로난 쇠소리난 버들속의 길 가난 스람을 조롱호고 외로이 잇난 두견은 부러귀난 소리의 부 〃 니별호고 가난 사람의 슈심을 돕난도다, 장부의 간장이 녹더라. 머리는 썩 〃 고향을 도라보니 밭길은 오던 길노 도로 가고 신부의 아리싸은 턱도와 년 〃 한 성음이 니목의 삼 〃 호니 슈심을 노리을 지여 불우니 호여시되, “신경이 미흡호니 이거시 다투신고, 원슈의 글이로다. 세계을 다투라셔 하여던고 원호나니 복희씨라.” 호더라.

박일용은 백년의 재촉으로 글공부를 위해 길을 떠날 때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금광이 타는 것 같은 상태에 놓인다. 임시방편으로 백년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제안의 실천을 위한 계획도 없으며 의지도 전혀 다지지 못했다. 그는 신혼의 정에 빠져서 헤어짐이 아쉽고 글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혼인 이후의 삶은 오로지 백년의 계획대로 따르게 되며, 계획의 실천이 막막한 상황임에도 대책없이 길을 나선다. 박도령은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거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목표로 설정된 ‘성공’을 위해 내몰리게 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자존감이 없는 심리 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부부의 권력 관계나 소통의 방식과 다를 뿐더러, 대등한 관계도 형성하지 못했다. 배경도 재산도 학문적 소양도 없는 박일용의 콤플렉스는 백년의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 앞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년의 박도령은 초야에 묻혀 지내는 영웅의 모습이라기보다, 몰락한 집안의 후예로 세상에 대해

기를 펴지 못하는 불우한 인물의 형상이다.

박도령이 결국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기는 10년 학업을 한 이후이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룬 뒤에야 그는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갖는다.

노승이 진스게 엿자오되, “진스님은 소송의 말씀을 드러보소서. 진스님 신  
닉게옵서 진스님 이별호오시고 나오실 썩 십년 귀약호셔다가 영화를 당호옵  
고 썩흔 경이 조은즉 신닉게옵서 날마나 기다리시고 썩〃로 기다리실 거  
시니 뱃비 내려 가옵소서. … 돈 오빅냥을 드리오니 니 돈은 진스님이 울노  
오시던 썩 소송이 십오냥 돈을 히마다 취리호와 천냥이나 되더니 소송이 가  
난호와 반은 쓰옵고 계우 오빅냥이 남아습기 진스님 술창오실 썩 보티여 쓰  
실가 호나이다.” 진스 이러나 직빅왈, “…닉 십연을 셴스고 의탁호고 의식을  
호엿거든 엿지 그 돈니 남아싸 호시노노. 집의 가란 말씀은 **닉 주의 잇소  
니** 듯지 못호게습노이다. 스텸의 욕심이 점〃 느러가믹 이제 진스난 호여시  
나 썩 몇히가 되던지 급계을 마즈 호고야 고향의 가 닉의 상면호랴 호오니  
션스난 말이지 마옵소서”

박일용이 우연히 북한산성을 찾아가 노승에게 의탁하여 여러 서생들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초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자, 노승이 이미 집 떠난 지  
10년이 지났고 학문도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  
한다. 10년 공부로 진사시에 오른 뒤에야 그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  
하고 이를 관철시키며, 또 하고 싶은 것, 즉 목표를 설정하고 앞날을 계획  
한다. 박일용은 단순히 백년의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  
망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일용이 애초의 계획보다  
3년 더 학업에 정진하고자 하는 것은 <강서고어샤전>이나 <고어사>에  
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소설 <백년전>에서 박일용의 인물 형상에

특히 강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백년과 약조한 기간보다 3년을 더 공부하여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박일용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지에 의해 목표에 도달한 인물로 재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박일용은 한림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뒤에 백년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부인〓 오슬 좁고 통곡왈, “너 당초의 독학 마음으로 십년 언약 하여거니와 십삼 년 혼주 산 것도 원통하거든 아제 다함이 만나다가 또 엇지 니별하리요 우리 합기 죽을지연정 노친 못하리로다.” … 부인니 한결갓치 노친 안코 말니〓 할님 왈, “열세 히 아니라 스물세 히라도 혼주 살아도 그디 타시니 날을 원치 말나. 빗비 가게노라.”고 하고 소미를 던치니 … 부인 흥일업서 방성통곡하며 그 아들을 불너 왈, “너의 아버니을 붓드러오라.” 흥는 소리 산천초목이 다 슬허하난 듯하더라. 할님이 빗사랑의 드러가 혼 거지 옷슬 벗고 진스흔 모양으로 복도난숨을 입고 빅찍을 들고 안으로 더러와 부인 압히 노코 “부인은 이거슬 아나뇨?” 한디 … 부인니 디경디회하여 할님을 붓고 희〓낙〓 흥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갈오디, “어이 사람을 그디지 조롱하여 안녀즈의 일천간증을 다 녹계 하시니까?” 할님왈, “부인은 첫날 밤의 어이 그디지 속여 장부의 간증이 녹계 하여난고?” 하고 닢외 웃더라.

박일용은 아내를 만나 그간 지낸 일을 속여, 13년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막일도 하고 빌어먹기도 하면서 차마 면목이 없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른다. 그리고는 백년이 울면서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면서 자신은 부끄러워서 집에 머물지 못하겠다 하며, 또 금산군수가 잡으러 온다고 속이고 한사코 붙드는 것을 떨치고 집을 나간다. 백년은 신혼 첫날 밤 차마 헤어지지 못해서 주저하던 박도령과 달리 결연한 모습으로 신랑의 집을 싸서

떠나보냈으나, 13년만에 재회한 자리에서는 어서 집을 떠나려는 박도령의 급한 태도와 다르게, 백년은 그간 홀로 지낸 것을 원통하게 여기며 절박한 심정이 되어 그를 붙든다. 그러나 박일용은 자신이 집을 나가게 되어 백년이 그동안 혼자 지낸 것이나 앞으로 혼자 살게 되는 것은 다 본인 탓임을 확인시킨다. 결국 박일용이 백패를 보여주며 벼슬에 오른 것을 폭로하자 백년이 자신을 속이고 조롱한 것을 원망하는데, 앞서 부부가 헤어져 지낸 것을 백년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과 같이, 부인을 속여 방성통곡하게 하고 간장을 녹인 것은 첫날 밤 백년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채 하다가 10년 공부 약조를 받아낸 일에 대한 양갓음임을 분명히 한다.

이처럼 박일용은 부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 신혼 첫날, 백년의 계획에 따라 본인의 일상과 바람을 희생해야 했다면, 돌아온 뒤에는 백년의 강한 만류도 뿌리치고 본인이 결정한 대로 상황을 몰고 간다. 더 나아가 박일용은 백년의 마음을 초조하고 애타게 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기 기도 한다. 이처럼 박일용이 집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초시와 진사시에 오르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시간을 더 투자하여 대과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년전>은 소설화 과정에서 박일용 자신의 성공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하여 양반 남성에게 전통적으로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와 가장의 위상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2) 백년의 소망과 성공의 이미지

백년은 지인지감이 있어서 크게 될 인물을 알아보고 살림을 잘 경영하여 박도령을 성공시킨 내조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작품 속 백년은 박도령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고 그를 위해 내조를 하는 여성으로만 평가하기

에는 남음이 있다. 백년이 박도령과 신흠 첫날 밤 나누는 대화에서 백년이 혼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그제야 신부 그동을 보고 마지 못하여 쥬순을 반기하고 낭〓헌 소리로 갈 오되, “첩이 낭군게 청할 말씀이 있스니 첩의 말씀을 드르시라면 첩도 몸을 허하와 낭군의 말씀을 듯조오려니와, 그러치 못호오면 죽어도 허치 못호계 삽나니아다.” … 신부 녀름 디왈, “낭반의 즈손되여 나서 글을 못호면 옛글 아지 못호고 형세홀 길이 업셔 눈 썸 소경 갖하야 반딕 본존치 못호여 상놈 되기 쉬운지라. 빛나고 영화롭고 즈손노릇호여 낭반 보전한 밧 업사오며 낭군이 학문을 심쓰게노라면 그디 말삼을 순중호려니와 그러치 못호면 무가너라!” 하거날 싱이〓 이 말을 드르니 하 어허업셔 흥격이 막혀 말을 못하다가 낭구의 갈오되 “너 썸 상부모호고 남의 집 멈사사 세월을 보드시니 하날천 썸도 모로거든 이제 이십의 엇지 글을 호라 호뇨? 찰하리 오날 밤 빅년 이년 미지 못홀지언정 글은 못호계노라.” 신부 썸 다시 고쳐 안져 갈오되, “너 말을 드러보소서, 사십 문장도 있다 하니 이십이 무어서 만하 글을 못호리요, 너일부텨이라도 공부를 호면 문장이 아니 되오릿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글을 호계노라 호시면 부〓지의를 밧습고 빅년을 괴약하게스오니 낭군은 이기 상양호읍소서. 종시 못호계노라시면 첩이 금야의 목숨을 쓴케삽나이다!” 호거날 싱이 빅 가지로 싱각호여도 글하란 말이 썸호 그르지 아니코 종시 못호계노라면 신부 모양을 보니 무산 거고 잇솔 듯호거날 너일은 엇지 되던지 오날밤만 넘기즈 마음이 드러가 … 신부답왈, “십년을 서로 써나 보지말고 근즈는 십년을 학업 공부를 호고 첩은 방적치산호여 서로 경공한 후 잘 되던지 못 되던지 십년 후 서로 만나 살기를 괴약호여 근즈난 치마폭의 글노 슈표를 호여 쥬고 첩은 죽절 빈녀을 썸썸 썸즈를 드리리다.” 호거날 박싱이 흥격이 막혀 답지 못호고 이윽 잠〓타가 겨오 정신을 차려

백년은 본인의 요구를 집요하게 관찰시키고자 하며, 그 요구에 본인의

인생과 목숨을 건다. 백년은 신혼 첫날 밤 잠자리를 하는 조건으로 박도령이 학업에 힘쓸 것을 제안하는데 박도령이 제안을 받아들여하려하지 않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고 협박한다. 백년이 박일용에게 학업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학문을 통해서만이 영화롭게 양반의 명맥을 이을 수 있고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양반의 자손이지만 몸을 사는 박도령이나 형부인 이진사에게 의탁해서 지내는 백년 자신 모두 양반의 지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백년이 나작이 되달, “뚝조니 박슈조는 본디 사부휴네요, 쏘 소견 능통하고 형식이 단정하여 비록 몸은 사나 범박이 비범타 하고 쏘 날과 갖지 일즉 부모업고 남의집의 의탁있다호오니 냥궁이 상합홀 분아니라, 디체 곤궁한 사름이 남의 불상호 정지을 안다 호오니 그 혼쳐 맛당호오니 너외분니 상의호오셔.”

이진사가 백년의 배우자감으로 추천한 박일용을 뉴씨가 거절하자, 백년은 뉴씨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다. 이때 백년은 그가 자신과 같이 곤궁하고 불쌍한 처지이니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른다. 그러나 백년이 같은 처지끼리 만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른 말은 곤궁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서로 심정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뉴씨에게 박도령이 배우자감으로 적당하다는 근거로 든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사부의 후예라는 점이었고 그 다음이 소견이 능통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여 비범하다는 것이었다. 단지 처지가 같아서 어울려 살만하다는 현실적 인식보다는, 지체 높은 집안의 후손이면서 자질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장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이러한 백년의 속내가 첫날 밤 박도령과의 거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백년이 경계하는 것은

집안의 배경이 될 만한 친지도 없고 자립하기도 녹록지 않은 박도령이 끝내 글을 배우지 않아 그나마 회복할 여지가 있는 양반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상놈으로 전락하는 일이었다. 그런 까닭에 잠자리를 조건으로, 여의치 않자 목숨을 담보로 박도령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백년은 박도령을 통해 신분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면 본인은 치산을 통해 부를 얻고자 했다.

신부 답왈, “십년을 서로 써나 보지 말고 굳는 십년을 학업 공부를 하고 쳄은 방적 치산하여 서로 경공한 후 잘 되던지 못 되던지 십년 후 서로 만나 살기를 괴약하여 굳난 치마폭의 글노 슈표를 하여 주고 처은 죽절 빈녀을 썩썩 썩즈을 드리리라”

박도령이 십년간 학업에 전념하는 동안, 본인은 실을 짓고 바느질을 하여 집안 경제를 잘 운용하겠다는 다짐이다.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희생하여 박도령이 학문을 통해 양반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면, 백년은 남의집 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부부가 10년간 서로 떨어져 ‘성공’을 해야 하는 임무는 박도령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박도령이 학문에 매진하는 것이, 백년이 치산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된다. 박도령을 통해 양반의 자손으로서 신분을 공고히 하는 것뿐 아니라, 본인 역시 방적에 힘써 재산을 형성하는 것, 즉 신분과 재물 모두가 혼인 이후 백년이 계획한 삶의 요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박도령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박도령이 글을 배우러 떠난 뒤, 백년은 치산에 힘쓴다.

천되 무심하여 니진스 너의 홀연 득병하여 년하여 구물하고 쏘 무즈한지  
라. ... 이진스 너의 구물한 후 약간 남은 가산을 맛타 치산니며 방적법절을  
지약히 하여 시스로 마음을 경계하여 가올디, “부〓갓탄 중흔 정의을 싱각지  
아니하고 이십이나 된 무식흔 군즈을 공부하라고 그쳐업시 언약하고 니별하  
여더니 필경 우리 가장이 학업을 성취하여시면 어니 곳의 가 의탁하며 만일  
결인이 되어시면 엇지하리. 엇디하든지 너나 허수이 세상을 보니라.” 하고  
더욱 바즈런하여 가산을 살피 늑칠년이 되미 가세 점〓 요부하여 십년이 되  
미 누만금 지물을 일우 전낭미답을 골〓 마다 장만하여 마음과 노복을 곳〓  
지 맛겨두고 가스를 불작시면 고루결각의 좌우 횡낭들이 빅여호춘닐너라.

백년은 박일용에게 약조한 대로 10년 동안 방적을 열심히 하여 재산을  
불린다. 언니 뉴씨의 집에 의탁해 지내던 처지였으나, 자식을 두지 않은  
이진사 내외가 모두 죽어서 남은 가산을 물려받고, 백년은 때때로 마음을  
경계하면서 부부의 정을 희생하면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위해 세월을 헛  
되이 보내지 않고자 다짐한다. 그는 부지런히 방적을 하고 가산을 살펴서  
기약한 10년이 되었을 때 누만금의 재물을 모아 고을마다 곡식을 재배할  
땅을 장만하여 마름과 노복에게 곳곳마다 맡겨두고 좌우의 행랑들이 백  
여 호나 되는 고루거각에서 살게 된다.

백년이 이룬 부의 정도는 박도령이 급제하고 돌아와 집을 찾는 과정에  
서 다시 한 번 묘사된다.

지평이를 잡고 한 고기 너머가니 빅여호 디춘 가운데 고루결각이 반공의  
소사잇거늘 활님이 그 집 촌자 맞큰 사랑으로 가니 각장장판의 셔화를 붓치  
고 와연니 서울즈상가갓더라.(진동혁본)

활님이 그 집알 촌져 드러가 방문 지니여 밧스랑의 드러간죽 각츄판 소라

반죽의 스면 서화를 붓친 그동이 와연이 경정 즙상집제되더라(전택부분)

진동혁본에서는 박도령이 고개를 넘어 백년이 사는 곳을 찾아가니 백여 호나 되는 큰 촌락 가운데 고루거각이 높이 서 있고 그 집 안에 들어가니 각장장판에 서화를 붙여놓았다고 했으며, 전택부분에서도 소라반자에 서화를 붙여놓은 집의 제도를 묘사하였다. 백년은 10여 년간 좋은 집에 많은 논밭, 농사를 짓고 소출을 낼 마름과 종들을 두어 경제적으로만 넉넉하게 재산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서울의 재상가에 견줄 만한 집치레의 격을 갖추었다. 서울의 재상가에서나 볼 수 있는 높고 큰 집에 으리으리한 집안 장식들은 백년이 박도령에게 약속한 방적 치산의 성과물이다. 재물만이 아니라 재물에 걸맞는 양식을 갖추어 ‘양반으로서 행세하는’ 데 손색없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즉 백년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긴 바, 즉 양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백년전〉이 반영한 시대 변화와 소설의 대응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18세기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시장체제가 마련되고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며, 농민층의 분화가 심화되고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품을 판 대가로 임금을 받는 고용노동자가 많이 양산되었을 뿐 아니라 원금의 2, 3배를 받는 고리대도 양반 사이에서 성행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생 조건이 마련되고 있었다.<sup>16)</sup> 그러나 조선

16) 이도흠, 「18~19세기 가사에서 상품화폐경제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古典文學研究』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69~74쪽.

후기에 성장한 상인자본의 많은 부분이 생산부문에 투자되기보다는 토지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고, 개항 이후에도 봉건정부는 지주의 이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하여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이 지주제의 강화로 나아갔다.<sup>17)</sup>

경제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와 욕망 역시 변화하였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목적으로 삼는 대상이 명분이나 애정, 혹은 가문의 종통만이 아니라, <장화홍련전>의 허씨나 <심청전>의 뽕떡어미, <흥부전>의 놀부에게서 볼 수 있듯이, 재물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재물’의 가치가 인간 욕망의 중심부에 들어오고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을 조선 후기 소설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백년전>에서도 축재(蓄財)가 서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동인물인 백년의 소망으로 설정되어 재물을 형성하는 과정과 부를 누리게 된 결과가 서사의 한 축을 차지하며, 박일용의 수학을 도운 북한산성 노승이 박일용이 지불한 돈을 밀천으로 삼아 취리(取利)하여 큰돈으로 불린 일도 조역의 역할로 진술된다.<sup>18)</sup> 자본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주된 사건이자 보조적 화소로 적극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의 대가가 아닌 물욕, 정당하지 않은 방법의 치부는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것과 달리, 착실한 노동을 통한 자본의 축적, 그리고 자기 자본을 통한 부의 형성에 대해서는 일종의 ‘능력’으로 인정되었다. 또

17) 윤홍식, 『전(前)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해체』, 『한국사회복지학』 68(2),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82~88쪽.

18) 노승이 진스께 엿즈오디 … “돈 오빅냥을 드리오니 니 돈은 진스님 올노오시던 썩 소승이 십오냥 돈을 히마도 취리호와 천냥이나 되더니 소승이 가난호와 반은 쓰옵고 계우 오빅냥이 남아습기 진스님 술창호실 썩 쓰실가 한나이다.”(진동혁본); 노승이 진스의게 엿즈오디 … “이 돈은 진스님 오실 썩에 소승 주시던 오십 양을 히마도 취리하여 늑천 양이 되옵더이 소승이 가난호습기로 만나 쓰아고 겨오 오빅 양이 남파 시니 진스님 술창호습실 제 힘중 노자의 붓턱여 쓰실가 한나이다.”(전택부본)

남성과 여성에게 부를 축적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 실제 양반 남성들이 가계 출납을 꼼꼼히 챙기는 등 가정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치산에 힘썼음<sup>19)</sup>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다. <오륜가>에서 물욕보다 도덕률을 강조하는 경우나 <우부가>에서 노름, 투전이나 전답, 서책 등을 팔아 이자놀이를 하여 번 돈으로 향락적 소비를 하는 내용에서 남성들의 자본 축재 행위는 비윤리적으로 다뤄진다. 실제로 19세기 남성 인물에 대한 기록에서는 생계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업에 힘쓰는 모습이나 물욕이 없는 청빈한 덕을 강조하는 수사가 오히려 익숙하다.<sup>20)</sup> 그렇지 않으면 19세기 초 율광연이 여러 대 벼슬에 오르지 못한 몰락한 경화사족으로서 경제적 궁핍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문집의 편찬에 몰두하여 사대부의 이름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던 것<sup>21)</sup>이나 19세기 말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농민, 혹은 ‘상놈’으로 살았던 김구가 글공부에 매진하고 과문(科文)을 공부하여 소과에 응시해 진사가 되고자 했던 것<sup>22)</sup>에서 일상의 밥벌이보다 양반가의 지체를 확보하고자 하는 바람을 스스로의 본분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김택영은 황원의 아내 안유인의 묘지명에서 과거가 폐지된 뒤에도 시골의 선비들은 종일 책만 보고 그 아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세대를 지적하기도 했다.<sup>23)</sup>

19) 16세기 <미암일기>나 <목재일기>부터 18세기 이후 <승총명록>과 노상추의 일기 등에서 기록자인 남성들이 녹봉, 가계의 출납, 물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20) 강성숙,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30, 한국여성문화학회, 2013, 11~16쪽.

21)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383~391쪽.

22) 천정환,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2008, 175~177쪽.

그에 비하면 여성이 더 현실적인 판단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성들에 대해서는 살림을 경영하고 노동을 하는 것, 가산을 책임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sup>24)</sup> 사(士) 계층의 남성은 노동으로부터 면제된 존재였고, 이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 필요했던 여성의 노동은 구체화되면서 가정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리되었다.<sup>25)</sup> 또 여성의 노동은 부녀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행(四行) 가운데 하나인 부공(婦功)으로 양반가 여성들도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돈벌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6)</sup> 이에 19세기 야담집에는 마느질과 길쌈으로 가정경제를 일으키는 여성, 치산을 잘하여 가산을 불린 경우, 남편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투자한 일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 실렸고,<sup>27)</sup> 규방가사에도 부의 축적에 대한 부녀자의 절박한 태도가 담겼다. <덴동어미화전가>에서 유리걸식하던 이승발과 덴동어미가 드난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체면 때문에 꺼리던 남편과 달리, 덴동어미는 현실 논리로 그를 설득한다. 덴동어미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잘 살려는 목적으로 개가의 대상을 선택하며, 달라진 상황마다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복선화음가>의 김씨 부인 역시 가난한 시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부녀자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여 각장장판에 소란반자를 한 집에서 4천석의 쌀을 추수하는 부자가 된다. 적대적 존재인 가난을 극복

23) 황수연, 「19세기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과 대처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68~71쪽.

24) 강성숙(2013), 앞의 논문, 22~26쪽.

25) 김경미,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 담론과 그 재생산 방식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3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41~72쪽.

26) 신정연, 「조선 후기 규방문화에서 치산활동의 전개과정」,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4, 21~32쪽.

27) 김성은, 「<계서야담>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지식인의 여성인식」, 『여성과 역사』 8, 한국여성사학회, 2008, 40~42쪽.

하고 가문을 흥성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한 치산행위를 하는 것이다.<sup>28)</sup> 소설에서도 <심청전>의 곽씨 부인이거나 <이춘풍전>의 춘풍 처의 경우에서와 같이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 덕목으로 승인되었다.

<백년전>은 이러한 세태와 인식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박일용은 남의 집에서 머를 살면서 글을 배운 적도 없지만, 그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지체 높은 집안 남성의 전통적인 역할, 즉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이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글을 배운 군자의 모습에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백년은 치산을 통한 축재를 본인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불린 재산으로 땅을 곳곳에 구입하여 지주로 행세를 하는 일, 그리고 서울의 재상이 못지않은 화려한 부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처럼 두 인물이 신혼 첫날 밤 약조를 하고 각자 10년을 투자하여 이루어려는 일은 당시 급격한 신분변동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갑남을녀가 내면화하게 되는 보편적 욕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욕망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박일용은 10년 공부 후에 본인의 의지로 3년을 더 매진하여 대과에 오르지만, 현실적으로 양반의 지위를 잃고 몰락한 인물이 스스로의 의지로 학문적 성취를 이룬다 해도 그에게 과거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김구가 마지막 진사시에 나아가 결국 낙방했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거의 부정과 폐단이 많아서 시험에 응시하여 신분상승, 혹은 신분을 회복하는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고 한정된 관직은 소수의 집안에서 독점하였다. 실제 제도와는 별개로 19세기에는 경화사족과 세도정치의 대두로 인해 문과를 통한 고급관료의 선발은 힘들어졌다.<sup>29)</sup> 이에 정약용이 정

28) 이도흠(2008), 앞의 논문, 83~99쪽.

29) 박현순,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서

작 명문거족의 자제들은 공부하지 않고 시골의 험벗고 굶주린 사람들만 부질없이 과거 공부를 하는 세대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sup>30)</sup>

또 조선후기 자기 자본이 없는 노동자들이 자산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홍부전>에서 매품팔이까지 나서는 임노동자에게 출구는 없었다. 착하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면 현실지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비가 물어다주는 박씨 안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판타지만이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삶을 버티게 하는 위로가 될 뿐이다. 집밖에서 고용된 노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가(班家) 여성들의 경우, 베를 짜고 바느질삿을 받아서 생계를 잇는 수준 이상의 부를 이룬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sup>31)</sup> 오광운의 모친 광주 안씨나 권원의 아내 박씨, 그리고 임헌희의 아내 윤씨 등이 집안이 가난하여 직접 길쌈과 침선에 부지런했다 해도 농사지을 땅이나 부릴 수 있는 노비를 두고 이를 잘 관리하였기 때문에 치부(致富)가 가능했다. 기본적인 자산이 없는 상태였다면 부녀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백년과 같이 고루거각과 많은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19세기 말 일부 지역에서 면포를 대량 생산한 경우 가족 노동력 이외의 고용노동력을 사용하여야 가능했던 사정과 저렴한 일본의 면제품이 시장을 점차 지배하게 되면서 농가의 직포산업이 약화되었던 것을 고려하면,<sup>32)</sup> 부녀 개인이나 핵가족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허생전>에서도 비슷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허생의 아내는 백년과 같이 글 읽는 남편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지만,

---

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24~31쪽.

30)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155~189쪽.

31)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8(4), 한국여성학회, 2012, 106~109쪽.

32) 이효재, 『한국 여성노동사 연구서설-조선사회와 여성노동』, 『여성학논집』 2,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85, 157~164쪽.

바느질과 품팔이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결국 허생에게 장인바치가 되거나 장사에 나서거나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다그친다. 허생의 처 역시 남편의 글공부를 위해 부녀자로서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에 나섰다. 바느질과 품팔이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이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생에게 가장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백년이 이룬 엄청난 규모의 치산은 그의 노동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백년전>이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개연성’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이전 단계의 이야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자식이 없는 이진사의 유산이 백년에게 종자돈으로 주어지면서 백년의 비약적인 경제적 성공이 소설 세계 내에서 그나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백년 부부의 소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몰락한 향촌의 사족 후예가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선택했던 방식을 따른다. 권력이나 인맥 없이 주요 벼슬에 오르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여성의 노동이 집안 경제를 크게 융성하게 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남성들에게 보수적 역할을 기대하는 심리와 그들이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부덕(婦德)의 하나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호의로 돌봐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조력자들을 만나고 후사 없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친지를 두지 않는 이상, 즉 우연한 도움이 연속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전>은 이들 부부의 여건에 대해 현실적 판단을 하는 뉴씨를 후경화하고 이진사의 지지와 신뢰를 통해 백년 부부의 계획을 앞날에 대한 선견지명으로 포장하면서 현실에서 통용되지 않는 꿈을 긍정한다.

<백년전>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들이 어쩌다 겪게 되는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영웅들의 서사와 달리, 미천한 처지의 인물들이 목표를 향

한 노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고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이 현실성이 강화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주인공들은 적절한 때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도덕적 처신으로 윤리적 우위를 점하며, 행운이 충분한 성공에 도달한다. 일종의 판타지이다. 실상 이러한 판타지는 봉쇄된 현실의 돌파구로써의 상상력, 즉 허구적 세계에서 가능해 볼 수 있는 비약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희박한 가능성에 대한 갈증을 반영하고 있다. 배경도 재력도 없는 향촌의 아무개가 전통적인 성공에 도달하고 힘 있는 가장도 되며 야무지게 살림을 하여 남의 부러움을 사는 재력을 얻어서 행세하게 되는 것은 실현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을 갖기 어려운 이들에게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다.

<백년전>이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20세기 초에는 구소설, 즉 고전소설과 일부 신소설이 가장 큰 독서 비중을 차지했고, 1920년대까지 고전소설의 문법이 형상화해내는 세계에 대한 탐닉은 지속되었다.<sup>33)</sup> 이 시기 제도적, 물적 토대의 변화 속에서 고전소설은 보수적인 세계 인식을 장르 형식으로 재생산하면서 답답한 현실에 대한 막다른 출구를 열어두는 것으로 소임을 하고 있었다. 이는 <백년전>에서 일용과 백년이 포기할 수 없었던, 실현 불가능한 소망의 투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 5. 결론

<백년전>은 19세기 후반부터 야담으로 향유되던 이야기가 소설화된 작품으로 20세기 초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다. 남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짧은 서사가 <백년전>으로 소설화되는 과정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오

33)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64~72쪽 참조.

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사화된 특성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소설화 과정은 이야기의 재미를 확보하면서도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독자들의 현실적 소망과 기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백년전>은 야담으로부터 서사가 부연되면서 주변인물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동 인물에 대한 가치를 보증하고 도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그들의 행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주변 인물의 후광을 입은 박일용은 몰락한 집안의 후예로 불우한 처지이지만 백년에 의해 부여된 성공의 동기를 내면화하여 전통적인 남성의 성공 의지를 다지고 이를 실현한다. 백년은 혼인을 통해 제대로 된 양반의 신분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관철시키며 본인 역시 재물의 경영에 나서서 향촌의 지주가 되고 서울 재상가의 집치레를 갖춘다.

애초 백년에 의해 소망된 이들 부부의 성공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몰락한 향촌의 사족 후예가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선택했던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당시 세태와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며 변화하는 현실 조건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바람이었다. 그럼에도 <백년전>의 기본 서사가 채택되고 소설화되어 두루 읽힐 수 있었던 것은 희박한 가능성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일용과 백년의 소망을 실현하면서 현실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이들의 삶에 막다른 출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20세기 초 여전히 애독되었던 고전소설의 소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소대성전> 완판 43장본(김동욱,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一,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573~594쪽).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907쪽.
- <강서고어사전>(『도선나설 청구구답』, 朝鮮書館, 1911, 21~25쪽).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1~394쪽.
- 강성숙,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42쪽.
- 강영순, 「<백년전> 원전 연구」, 『열상고전연구』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295~358쪽.
- 김경미,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 담론과 그 재생산 방식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3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41~72쪽.
-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8(4), 한국여성학회, 2012, 85~117쪽.
- 김귀석, 「<민시영전>과 <백년전>의 비교연구」, 『論文集』 10, 東新大學校, 1998, 15~30쪽.
- 김귀석, 「<백년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42, 한국언어학회, 1999, 169~184쪽.
- 김성은, 「<계서야담>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지식인의 여성인식」, 『여성과 역사』 8, 한국여성사학회, 2008, 21~57쪽.
- 김준형, 「19세기말~20세기 초 야담의 소설화 과정과 <백년전>」,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 201~238쪽.
-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369~406쪽.
- 박현순,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3~37쪽.
- 서경희, 「탈권위적 여훈서의 성립과 이념성의 문제: <여자행실록>을 중심으로」, 『東方學』 32,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5, 59~93쪽.

- 신정연, 「조선후기 규방문화에서 치산활동의 전개과정」,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4, 1~83쪽.
- 윤홍식, 「전(前)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해체」, 『한국사회복지학』 68(2),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79~105쪽.
- 이도흠, 「18~19세기 가사에서 상품화폐경제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古典文學研究』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61~106쪽.
- 이효재, 「한국 여성노동사 연구서설-조선사회와 여성노동」, 『여성학논집』 2,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85, 147~167쪽.
- 조상우, 「〈백년전〉 研究」, 『東洋古典研究』 8, 東洋古典學會, 1997, 63~88쪽.
- 진동혁, 「미발표 고대소설 <백년전> 해제」, 『도솔어문』 5,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61~179쪽.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1~563쪽.
- 천정환,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2008, 1~375쪽.
- 황수연, 「19세기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과 대처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45~74쪽.

ABSTRACT

The characterization of *Baegnyeonjeon* and its Meaning of the Times

Seo, Kyung-hee

This study examined the expectations of novel readers and its meaning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a world created by monotheistic narratives of *Baegnyeonjeon*. This novel, which was a story that was enjoyed in the form of Yadam since the late 19th century, has been widely read in the early 20th century. *Baegnyeonjeon* was created as a novel, actively deploying Minor characters and expanding their role. As a result, Minor Character proved the value of the main character, proved morality, and led readers to have an optimistic view of their actions. Park Yil Yong, the male protagonist in the halo of the people around him, is a descendant of the fallen family, but he internalizes the motivation for success given by Baegnyeon and endures the success of traditional men. Baegnyeon, through her marriage, pursued a desire to acquire a proper nobility, and she also managed the treasury and became the landowner of the local village and equipped the house of the noble family of Seoul. The success of these couples, originally hoped for by Baegnyeon, follows the manner in which the descendants of the fallen village nobility chose to restore their social status from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is success was a very rare possibility for those who had difficulty in having a vision for the new environment, although it was hard to achieve in the time and system, but it was unforgivable. *Baegnyeonjeon* realizes the wishes of Yil Yong and Baegnyeon, and is in a position to open a dead end door to reality without breakthrough.

**Key Words** *Baegnyeonjeon*, Main Character, Minor Character, success, novelization

논문투고일 : 2018.01.15

심사완료일 : 2018.02.05

게재확정일 : 2018.02.12